국제 금융 속보

국제금융센터
Flash News
2022. 10. 27
해외동향부 (제 6348)

■ **주요 뉴스: 미국 빅테크 실적부진, 경기침체 우려 심화, 일부 통화긴축 속도 조절 기대는 지속**

○ IMF 총재, 각국 중앙은행은 중립 수준까지 금리를 인상할 필요

○ 중국 국영은행, 위안화 약세 방지를 위해 달러화 매도

○ 일본은행, 국채 초장기물 매입 규모를 확대. 수익률 상승 대응이 목적

■ **국제금융시장: 미국은 기업실적 부진 등으로 위험자산 선호 약화**

주가 하락[-0.7%], 달러화 약세[-1.1%], 금리 하락[-10bp]

○ 주가: 미국 S&P500지수는 대형 IT 기업 실적의 예상치 하회 등이 원인

유로 Stoxx600지수는 광산주 강세 등으로 0.7% 상승

○ 환율: 달러화지수는 연준 통화정책이 덜 매파적일 수 있다는 기대 등이 영향

유로화와 엔화 가치는 각각 1.2%, 1.1% 상승

○ 금리: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는 통화긴축 완화 가능성 등이 반영

독일은 유로존 경기침체 진입 가능성 등으로 6bp 하락

※ 원/달러 1M NDF환율(1412.7원, -13.9원) 1.0% 하락, 한국 CDS 보합

		10/26일	10/25일	전일대비
주가	미국	3,830.6	3,859.1	-0.74%
	유럽	410.31	407.61	0.66%
	중국	2,999.5	2,976.3	0.78%
	일본	27,432	27,250	0.67%
	한국	2,249.6	2,235.1	0.65%
환율	달러지수	109.69	110.95	-1.13%
	유로화	1.0081	0.9966	1.15%
	엔화	146.37	147.93	1.07%
	위안화	7.1730	7.2687	1.33%
	원화	1,426.6	1,433.1	0.46%

		10/26일	10/25일	전일대비
국채 금리 10y	미국	4.00%	4.10%	-10bp
	독일	2.11%	2.17%	-6bp
	영국	3.58%	3.64%	-6bp
CDS 5y	한국	64bp	64bp	0bp
	중국	118bp	129bp	-11bp
위험 지표	EMBI+	-	457	-
	VIX	27.28	28.46	-4.15%
원자재	WTI유	87.91	85.32	3.04%
	구리	354.5	339.7	4.36%
	금	1,664.6	1,653.2	0.69%

주: 주가는 미국 S&P 500, 유럽 Stoxx 600, 중국 상해종합, 일본 닛케이225, 한국 Kospi. NDF 환율 변화는 스왑포인트 감안한 전일 현물환 종가 대비. 환율은 달러화 대비 통화가치 등락(+/-는 절상, 절하). 자료: 블룸버그

금일의 포커스

■ **미국 빅테크 실적부진. 경기침체 우려 심화. 일부 통화긴축 속도 조절 기대는 지속**

○ 전일 Microsoft와 Alphabet에 이어 10/26일 장 마감 이후 공개된 Meta도 시장 기대에 미치지 못한 3/4분기 실적을 발표. 주당순이익과 매출은 각각 1.64달러, 277.1억달러로 예상치(각각 1.89달러, 273.8억달러) 하회

○ 아울러 Meta는 전반적인 온라인 매출 감소, TikTok 등 여타 업체와의 경쟁 심화, 개인정보보호 침해 논란 등에 직면해 있어 향후 전망도 밝지 않은 편. 4/4분기 매출도 당초 예상을 하회할 것으로 관측

○ 지금까지 S&P500 기업 중 실적을 발표한 170개 기업 가운데 75%가 시장 예상을 상회. 그러나 크게 낮아진 시장 예상치, 10월 초 기준 S&P500 기업 이익 증가율 추정치의 하향 조정(4.5%→2.5%) 등은 투자심리를 저해. 이러한 기업실적 관련 부정적 요인은 경기침체 우려 확대로 연결

○ 다만 일부에서는 경기침체에 대한 불안이 높아질수록 연준이 긴축속도 조절에 나설 수 있다는 기대도 증가. 최근 발표되고 있는 주요 경제지표도 대부분이 향후 경기가 급격히 둔화될 수 있다는 신호를 발신. 이를 반영하여 주요 국채금리가 전일비 하락(2Y: 4.40% -7bp, 10Y: 4.0% -10bp)

○ 한편 이날 캐나다 중앙은행이 시장 예상(0.75%p) 하회하는 0.5%p 금리인상을 단행. 이는 경기침체 우려 등이 실제 중앙은행의 금리인상에 반영된 것으로 평가. 맥클렘 총재는 금리인상이 곧 종료될 수도 있다고 발언

글로벌 동향 및 이슈

■ **미국 9월 상품 무역수지, 전월비 적자폭 확대. 수출 증가세 둔화 등에 기인**

○ 9월 상품 무역수지는 922억달러 적자로 전월(876억달러 적자) 대비 악화. 달러화 강세가 식품 및 에너지 가격 상승의 영향을 완화시켜 명목 무역적자를 축소시켰으나 향후 순수출 감소를 초래할 전망(Moody's Analytics의 Mark Hopkins)

○ 한편 9월 신규주택 판매는 연환산 60.3만건으로 전월비 10.9% 감소. 이는 금리인상에 따른 주택 구입 여력 약화 등이 배경. 한편 30년 만기 모기지 금리는 전주(6.94%) 대비 상승한 7.16%를 기록해 '01년 이후 최고치

■ **IMF 총재, 각국 중앙은행은 중립 수준까지 금리를 인상할 필요**

○ 게오르기에바 총재는 각국의 중앙은행이 중립금리로 나아가고 있지만 아직 이에 도달하지는 못했다고 진단. 또한 인플레이션 상승 시 경제성장이 악화되면서 빈곤층에 큰 피해를 입히므로 중앙은행은 금리를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

■ **유럽 집행위원회 부위원장,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은 유럽 산업기반 약화를 초래**

○ 마가렛 베스티거 부위원장은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과 에너지 위기의 결합이 역내 산업기반을 저해할 수 있다고 경고. 또한 해당 법안에 따른 보조금 지급이 일부 개별 기업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님을 유의해야 한다고 강조

■ **영국 재무부, 중기 재정 전망 발표를 연기**

○ 중기 재정 전망 발표 예정일을 기존 10/31일에서 11/17일로 변경하고, 이는 영국 경제를 위한 올바른 결정을 내릴 시간을 얻기 위함이라고 설명. 또한 경제 안정과 영국의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고 부연

■ **중국 국영은행, 위안화 약세 방지를 위해 달러화 매도**

○ 관계자들에 따르면, 10/25일 대형 국영은행들이 역내 및 역외 시장에서 달러화를 매도. 중국 국내 지점들이 뉴욕 거래시간에 해당 조치를 취한 점은 이례적. 이는 단기적으로 위안화 가치 안정에 기여(Bloomberg Intelligence의 Stephen Chiu)

■ **일본은행, 국채 초장기물 매입 규모를 확대. 수익률 상승 대응이 목적**

○ 10/21일 예고 대비 매입 규모를 확대(잔존 만기 10~25년 및 그 이상 잔존 만기 국채 매입을 각각 1000억엔, 500억엔 증액). 이러한 조치는 8월 이후 10년물 이외의 국채 수익률이 전반적으로 상승한 점을 고려(Okasan Securities의 Makoto Suzuki)

■ **세계은행, 내년 국제유가는 금년 대비 하락할 전망**

○ 세계 경제 성장률 둔화, 중국의 코로나 봉쇄 지속으로 '23년과 '24년 브렌트유 가격이 각각 배럴당 92달러, 80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(10/26일 배럴당 95.7달러)

주요 경제지표

■ **주요 경제 이벤트(10/27 현지시각 기준)**

○ ECB 통화정책회의, 미국 3/4분기 성장률 및 10월 3주차 신규실업급여 청구건수

해외시각 및 외신평가

■ **연준의 수익구조, 금리인상 등으로 악화될 전망 - 블룸버그**
(Fed Is Losing Billions, Wiping Out Profits That Funded Spending)

○ 연준은 공격적인 금리인상의 여파로 보유 채권의 가격 하락, 시중은행 지급준비금에 대한 이자 지급 증가 등에 직면. 만일 이로 인해 연준의 손실이 늘어난다면 정부가 관련 문제를 해결해야 할 필요

○ 보유 채권의 가격 하락에 따른 손실 증가는 코로나 팬데믹 기간 중 이행했던 자산매입프로그램에 대한 비판을 키울 수 있으며, 다음 위기 발생 시에 연준이 사용할 수 있는 정책에 대한 제약 요인으로 작용할 소지

○ 시장에서의 예상대로 연방기금금리 목표가 11월 0.75%p, 12월 0.50%p 인상되면 연간 800억달러 이상의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(Amherst Pierpont)

■ **최근 미국의 주가 상승, 약세장 속 일시적 현상일 가능성 - Financial Times**
(Bear market rally II)

○ S&P 500지수는 연준의 금리인상 완화 기대 등으로 2주전 저점 대비 10% 상승. 이는 금년 6월 물가하락 및 연준의 통화정책 전환 기대 등으로 주가가 약세장 속 일시적으로 상승했던 상황과 유사

○ 일각에서는 물가 하방압력 증가, 양호한 기업실적, 견조한 소비 등으로 향후에도 주가가 지속적인 상승을 이어갈 것으로 기대

○ 그러나 통상적으로 물가하락 시기에 기업이익 축소가 동반. 또한 물가하락은 점진적으로 진행되기에 금리는 높은 수준에서 장기간 유지될 것으로 예측. 이러한 상황을 고려한다면 최근 주가상승은 일시적 상승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

■ **ECB, 대차대조표 축소 논의 시작 예상 - Financial Times**
(ECB to start talks on shrinking balance sheet amid bond market turmoil)

○ ECB는 금주 예정된 통화정책회의에서 목표물 장기대출프로그램(TLTRO) 등을 통해 지난 8년간 8.8조유로로 4배 이상 늘어난 보유자산의 축소 방안을 논의할 전망

○ 가계와 기업이 차입비용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을 때 은행에 대한 정책 지원이 계속되는 것은 정치적으로도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평가. 한편 프랑스 중앙은행 빌루아 드 갈로 총재는 대차대조표 정상화는 신중하게 시작한 다음 점차 가속화하는 방식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주장

■ **미국 공화당의 물가안정 대책, 실제 효과는 기대난 - The New York Times**
(Republicans Denounce Inflation, but Few Economists Expect Their Plans to Help)

○ 11월 중간 선거를 앞두고 공화당은 고소득층에 대한 세금부담 완화, 법인세 인하 등을 통해 물가상승 압력을 완화시킬 수 있다고 주장. 또한 감세정책이 기업투자 촉진, 일자리 증진 등을 유발하여 성장여력을 강화시킨다는 의견을 제시

○ 하지만 공화당 정책이 '23년 물가를 낮추기는 어려울 것으로 평가(American Enterprise Institute의 Michael R. Strain). 바이든 행정부도 공화당 주장이 재정 부담만 늘린다고 반박

○ 바이든 행정부의 경제 관료들은 공화당이 주장하는 경제정책이 오히려 인플레이션 압력을 높여 연준의 보다 적극적인 금리인상을 초래할 수 있다고 비판. 한편 공화당 내부에서도 사회안전망 관련 재정지출 축소에 대해서는 이견이 존재

■ **유럽의 높은 인플레이션, 에너지 가격 하락에도 한 동안 지속될 전망 - 블룸버그**
(Europe's Inflation Squeeze to Linger Even as Gas Prices Drop)

○ 유럽 내 휘발유 가격이 하락하고 있지만 가계와 기업이 치솟는 인플레이션 압력으로부터 단기간에 벗어날 가능성은 제한적

○ 유럽집행위원회 연구에 따르면, 천연가스 도매가격의 변동이 소비자에게 완전 전가되기까지 최대 12개월이 소요. 즉 도매가격 하락에도 불구 소비자는 여전히 높은 수준의 가격을 부담해야 하는 상황

○ 유럽은 러시아산 천연가스 없이 에너지 확보를 위해 고군분투해야 하는 가운데 중국과의 에너지 확보 경쟁까지 더해지면서 에너지 가격이 다시 오르는 경우에 직면할 가능성도 상존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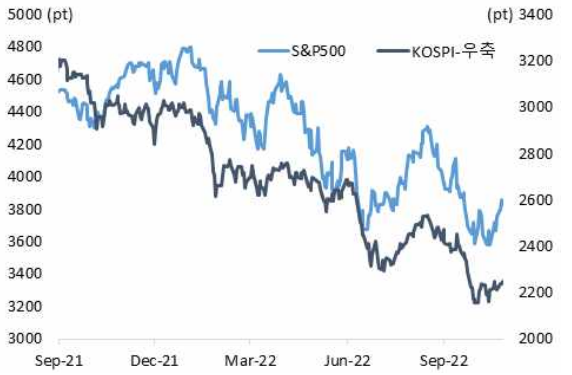
■ **연준의 통화긴축 속도 조절 여부 판단, 채권시장의 움직임을 주시할 필요 - 블룸버그**
(Fed Pullback? Not If It's Watching the Bond Market Closely)

■ **미국 주택가격, 금리상승 불구 견조한 고용으로 급락 가능성은 낮은 편 - Financial Times**
(US house prices are unlikely to crash)

■ **아시아 반도체 기업, 미·중 기술경쟁 심화를 대비한 투자전략 요구 - Financial Times**
(The real corporate cost of decoupling is becoming clear)

금융시장 주요 지표

S&P500 및 KOSPI



미국 및 한국 국채 10년물

자료 : Bloomberg

달러인덱스 및 원/달러 환율

브렌트유 및 유럽 천연가스

자료 : Bloomberg

VIX 및 EMBI+

달러-원 스왑베이시스 및 한국 CDS

자료 : Bloomberg

국제금융센터의 사전 동의 없이 무단 전재 금지 ; 본 자료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투자행위 등에 대하여 일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. 문의: 02-3705-6172, E-mail jsjeong@kcif.or.kr